

# SIPRI YEARBOOK 2026

군비, 군축, 국제안보

연감: 한국어 요약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이하 SIPRI)는 분쟁, 무장, 군비통제, 군축에 대한 연구에 전념하는 비정부 민간 연구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연구과제를 채택하고 있다. 1966년에 설립되었으며 공개된 자료에 기반한 데이터와 분석, 권고사항 등을 정책결정자, 연구자, 언론 및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대상에게 제공하고 있다.

SIPRI 연감

2026년 SIPRI 연감은 세계 군사비 지출, 국제 무기 이전, 무기 생산, 핵전력, 무력 분쟁 및 다자간 평화 작전과 같은 분야의 원본 데이터를 제공하며, 군비 통제, 평화 및 국제 안보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최신 분석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2026년 SIPRI 연감에 포함된 표본 데이터 및 그 분석을 요약 및 제공한다.

목차

제1부. 국제 안보와 무력 분쟁, 2025년

|                                |   |
|--------------------------------|---|
| 1. 체제적 교란의 과제와 평화연구의 미래에 대한 성찰 | 1 |
| 2. 전 세계 무력 분쟁 동향               | 2 |
| 3. 지역별 안보 및 분쟁 동향              | 3 |
| 4. 평화 프로세스와 다자간 평화활동           | 4 |

제2부. 군사비 지출과 무기, 2025년

|                                |    |
|--------------------------------|----|
| 5. 군사비 지출                      | 6  |
| 6. 무기 생산과 군사 서비스               | 7  |
| 7. 국제 무기 이전                    | 8  |
| 8. 세계 핵전력                      | 10 |
| 9. 미사일과 무장 무인항공기(UAV)의 확산 및 사용 | 12 |

3부. 비확산, 군비 통제 및 군축, 2025년

|                                |    |
|--------------------------------|----|
| 10. 핵 군비축소 및 군비통제, 핵확산방지 및 안보  | 13 |
| 11. 화학무기와 안보 위협                | 14 |
| 12. 생물무기와 보건 안보 위협             | 15 |
| 13. 재래식 군비통제 및 비인도적 무기의 규제     | 16 |
| 14. 인공지능(AI), 국제 평화 및 안보       | 17 |
| 15. 사이버 및 디지털 기술: 동향, 사건, 거버넌스 | 18 |
| 16. 우주 안보 거버넌스                 | 19 |
| 17. 이중용도 및 무기거래통제              | 20 |

|    |    |
|----|----|
| 부록 | 22 |
|----|----|

\* 이 번역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공식 버전인 영문 요약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체제적 교란의 과제와 평화연구의 미래에 대한 성찰

카림 하가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장)

이번 SIPRI 연감은 연구소 창립 60주년에 맞춰 발간되었다. 지난 60년간의 격동적 변화를 경험하고 이에 대응해 온 가운데, 국제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체제적 교란<sup>systemic disruption</sup>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연구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의 교란이 발생한 원인을 이해하는 것, 이로 인해 심화되는 지정학적 불안정과 인간안보 위협을 완화하는 것, 그리고 평화·안정·안보를 위한 새로운 틀을 구축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해 매우 복합적인 과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 새로운 전략적 지형

최근 10년간 전략적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현재의 강대국 경쟁 국면을 특징짓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 동인과 관련이 있다. 첫째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 사이에서 대규모 국가 간 전쟁이 재개된 것이며, 둘째는 미국의 동맹 체제가 약화된 것이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내 동-서 분열의 재현을 의미했으며, 러시아를 냉전 종식 이후 유럽 안보 질서에 통합하려던 기대를 무너뜨렸다. 동시에 중국의 부상과 미국과의 경쟁 심화는 세계 세력 균형을 변화시켰다. 이에 더해, 세계 핵질서를 지탱하던 세 가지 기반도 약화되었다. 즉, 전략 핵 군비통제 체제는 붕괴되었고, 국제 비확산 체제는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반의 약화는 신흥 파괴적

군사기술<sup>emerging disruptive military technologies</sup>과 주요 국 간 강압적 경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 인간안보 위협의 고조

지난 20년간 분쟁 해결 노력을 주도해 온 자유주의적 평화구축 패러다임은 점차 힘에 기반한 거래적 접근으로 전환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2025년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추진한 ‘평화 외교’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다자간 평화 체제의 후퇴, 무력 사용을 제약하던 각종 장치의 심각한 약화,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분쟁 관련 인간안보 위협의 증가는 서로 맞물리며 다층적인 복합 위기를 구성하고 있다.

### 새로운<sup>renewed</sup> 평화연구 의제

향후 평화연구 의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포괄적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 첫째, 강대국 경쟁을 안정화하는 것, 둘째, 신기술 및 지정학적 분열에 적합한 새로운 군비통제 체제를 개발하는 것, 셋째, 분쟁을 유발하는 인간안보 위협 요인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 넷째, 미래 전장과 신군사기술이 가져올 함의를 예측하는 것이다.

평화연구는 협소한 국가안보 의제에 봉사하는 방향, 국방연구에 흡수되는 방향, 또는 인간안보를 포기하고 ‘경성 안보<sup>hard security</sup>’에만 치중하는 방향과 같이 그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평화연구는 단순히 분쟁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대적 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형태의 평화를 지지하는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분야로서 보존되어야 한다. ●



## 2. 전 세계 무력 분쟁 동향

2025년 전 세계 무력 분쟁의 양상은 2024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폭력이 지속되었다. 무력 분쟁이 발생한 국가 수는 2024년 50개국에서 2025년 49개국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들 국가에서 벌어진 전투의 대부분은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 정부군과 비국가 무장단체 간의 국가 내부 전투였다. 그러나 국가 간 무력 분쟁의 수는 2024년 3건에서 2025년 6건으로 두 배 증가하였으며, 최소 13개국에 연관되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캄보디아-태국, 인도-파키스탄, 이란-이스라엘/미국, 러시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우크라이나, 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이다. 가자지구 전쟁은 다소 모호한 영역에 속하는데, 이는 국가(이스라엘)와 국가 지위를 추구하는 행위자 간의 보다 광범위한 팔레스타인 분쟁의 일부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추정 분쟁 관련 사망자 수는 2024년 249,000명에서 2025년 238,000명으로 소폭(4.2%) 감소하였으나, 이는 일관된 데이터가 확보된 2018-2025년 기간 중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5년에는 1만 명 이상의 분쟁 관련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무력 분쟁이 다섯 건 있었으며, 이는 2024년보다 한 건 증가한 수치다. 분쟁 관련 사망자 수가 1,000명에서 9,999명에 이르는 고강도 분쟁의 수는 2024년 23건에서 2025년 20건으로 감소하였다.

정밀타격무기, 인공지능 기반 표적 선정, 자율 무기 체계, 군집 무인항공기(UAV 혹은 드론), 그리고 사이버 작전이 이제 무력 분쟁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인간의 통제 여부와 관련해 다수의 윤리적·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제인도법(IHL)

### 2025년 주요 무력 분쟁 및 분쟁 관련 예상 사망자 수

| 지역         | 2025년 분쟁 관련 예상 사망자 수 |                  |
|------------|----------------------|------------------|
|            | 2025                 | 변화율(%), 2024-25년 |
| 우크라이나      | 78 350 <sup>a</sup>  | 6                |
| 수단         | 18 447               | 11               |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 16 933               | -44              |
| 미얀마        | 15 468               | -23              |
| 나이지리아      | 12 096               | 22               |

주석: '무력 분쟁 위치 및 사건 데이터(ACLED)' 프로젝트의 자료를 기반으로 함. 여타 공공 출처는 일부 사례에서 이보다 더 높은 사망률을 제시함. 주요 무력 분쟁은 분쟁 관련 사망자 수가 1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지칭함.

<sup>a</sup> 우크라이나 내 예상 사망자 수에는 해당 지역에서 교전 중인 러시아인 및 북한인 사망자 수가 포함됨. ACLED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러시아 내에서 1,856명의 분쟁 관련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함.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병 징집, 성폭력, 전투수단으로서의 기아 사용,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 등 금지된 전쟁 수단의 우려스러운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 강제신향<sup>forced displacement</sup> 문제 역시 대규모 인도적 과제로 남아 있다. 2025년 중반 기준, 약 1억 1,730만 명이 신향 상태에 있었으며, 이는 분쟁이 초래한 인적 피해를 보여준다.

2025년에 나타난 전 세계 무력 분쟁 동향은 영토 정복을 금지하는 규범이 심각한 압박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우크라이나, 중동, 남중국해 등지에서 발생한 병합과 점령은 무력으로 영토를 획득할 수 없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원칙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이러한 무력 사용 금지 규범의 약화가 방치된다면, 지정학은 다시 순수한 군사력 경쟁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



### 3. 지역별 안보 및 분쟁 동향

지역별 안보 및 분쟁 동향은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에 대한 복합적인 위협과 도전이 뒤섞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2025년에는 세계 주요 지역 전반에서 무력 분쟁의 격화, 강대국 경쟁, 세계질서의 분열,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양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 아메리카

2025년 아메리카 지역에서 나타난 주요 인간안보 및 국가안보 동향으로는, 역내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지역 패권을 재확립하려 시도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아메리카 전역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압박 강화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흐름은, 범죄 조직이 역내 여러 국가에서 국가의 폭력 독점과 영토 통제에 계속 도전하였다는 점이다.

####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2025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다양한 안보 지형은 중국과 미국 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로 계속 특징지어졌다. 역내 다른 동향으로는 다수 국가에서 지속되는 군비 증강과, 민주주의 후퇴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국내 불안정이 있었다. 역내 주요 긴장 지점 몇 곳은 여전히 국가 간 주요 무력 분쟁으로 격화될 위험을 안고 있었으며, 일례로 2025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이례적으로 심각한 군사적 위기가 발생하였다.

#### 유럽

2025년 유럽의 안보 정세는 지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 주로 형성되었으

며, 이로 인해 유럽은 분쟁 관련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다. 이 전쟁은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국가 우선순위를 군사력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이끌었고, 군사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으며, 정치적 분열과 강대국 경쟁을 한층 심화시켰다.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뿌리 깊은 불안정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이다. 2025년 이 지역은 전 세계 강제 실향민의 약 5분의 1을 수용하였으며, 심각한 식량 및 식수 불안정에 직면하였다. 10월에 발효된 공식 휴전으로 가자지구 전쟁의 대규모 군사 공세는 중단되었으나, 이후에도 빈번하고 심각한 휴전 위반이 발생하였다. 이 전쟁은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과 인도적 재앙을 초래하였으며, 가자 인구의 90%가 실향 상태에 놓였고, 2025년 말까지 보고된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는 71,000명을 넘어섰다. 이란-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간의 경쟁 관계도 그 해 역내 불안정과 무력 분쟁을 가중시켰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인간안보와 국가안보 영역에서 서로 맞물린 복합적인 도전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는 극심한 빈곤, 무력 분쟁, 테러 위협,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취약한 거버넌스, 그리고 역외 국가들이 영향력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심화되는 지정학적 경쟁이 포함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2025년 전 세계 국내 실향민의 45% 이상을 수용하였으며, 약 1억 6,700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사상 최고 수준의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한 것으로 추정된다. ●



#### 4. 평화 프로세스와 다자간 평화활동

2025년 평화 프로세스는 더욱 분절화되고 거래적이며 강압적인 양상을 띠었다.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합의보다는 신속한 거래, 휴전, 그리고 지도자 주도의 협상에 더 큰 비중이 주어졌다. 이러한 접근은 일부 개략적 합의를 이루어냈으나, 합의는 대체로 취약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불완전했으며, 지속 가능한 화해보다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는 다자간 평화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더 이상 다자체제를 지탱할 의지가 없으며, 2025년에는 여러 유엔 기구로부터 탈퇴하고 재정 지원을 중단하며 그 효과성에 의의를 제기하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은 미국을 대신해 이러한 역할을 할 의지가 없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 이러한 다자 차원의 무대응 상황 속에서, 브라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견국들은 자국의 국

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동시에 다자간 안보 체제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넓혀가고 있다.

#### 2025년의 평화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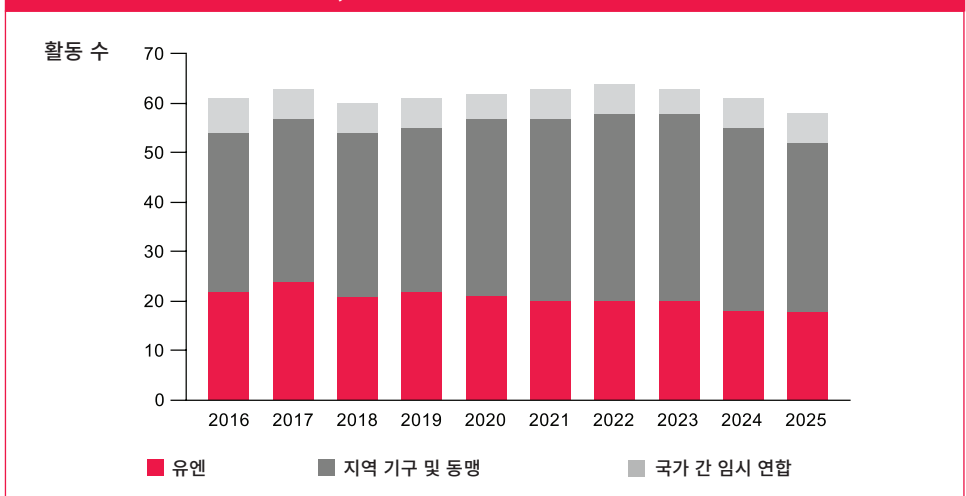
2025년에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콩고 민주공화국-르완다,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그리고 가자지구 전쟁을 비롯한 일부 주요 또는 장기 분쟁에서 부분적인 타결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행 격차와 폭력의 재발은 여전히 중대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

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위원회 Board of Peace’를 가자지구의 거버넌스를 감독할 새로운 국제 과도 기구로 설립하는 데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설립 현장에는 유엔의 목표와 잠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한층 더 광범위한 목표를 담고 있다.

#### 다자간 평화활동

다자간 평화활동은 2025년 정치적·재정적 압박은 물론 합의 도출의 약화와 임무 철수

주도 기관별 다자 평화유지활동 현황, 2016-25년



지역별 다자 평화유지활동 파견 국제 인력 현황, 2016-25년

|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중동 및 북아프리카 | 유럽   | 미주 (AMERICAS) |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
| 2016 | 110181      | 14351      | 8832 | 5464          | 13975       |
| 2017 | 107189      | 14949      | 8649 | 1606          | 15467       |
| 2018 | 103528      | 14408      | 8126 | 1433          | 17296       |
| 2019 | 97519       | 15082      | 7819 | 275           | 17086       |
| 2020 | 94201       | 14615      | 8063 | 304           | 9941        |
| 2021 | 88823       | 14289      | 8108 | 301           | 337         |
| 2022 | 92594       | 14206      | 7567 | 306           | 311         |
| 2023 | 76372       | 14283      | 9215 | 377           | 321         |
| 2024 | 69913       | 14498      | 8898 | 828           | 314         |
| 2025 | 55229       | 12005      | 9755 | 1336          | 308         |

에도 직면하며, 전통적인 평화구축에 대한 어려운 전망을 예고하였다. 2025년 활동 중인 평화활동은 58건으로 전년보다 3건 줄었으며, 이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60건 미만으로 떨어진 수치다. 2025년 중 새로 시작된 평화활동은 두 건으로, 소말리아 아프리카연합 전환임무단(ATMIS)을 계승한 소말리아 아프리카연합 지원·안정화임무단(AUSSOM)과 아이티 갠단진압군(GSF)이다. 같은 해 말까지 종료된 평화활동은 네 건으로, 아이티 다국적안보지원임무단(MSS),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민스크 회의 분쟁 담당 의장 개인 대표(PRCIO),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콩고민주공화국 임무단(SAMIDRC), 그리고 유엔 이라크 지원단(UNAMI)이다.

전 세계 다자간 평화활동에 배치된 인력 규모는 지난 10년간 거의 49% 감소하여, 2016년 12월 152,803명에서 2025년 12월 78,633명으로 줄어들었다. 2025년 전년 대비 인력 감소분 15,818명은 주로 평화활동 인력이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감축에서 기인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유엔의 평화유지 예산은 명목 기준으로 약 79억 달러에서 54억 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유엔은 2025년에도 여전히 다자간 평화활동을 주도하는 주요 기구로 남아 있었다. 2025년 12월 기준, 유엔은 18건의 평화활동과 전체 배치 인력의 67%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평화활동의 대다수는 지역기구 또는 동맹이 주도하였으며, 이들은 2025년에 34건의 다자간 평화활동을 이끌었다(2024년보다 3건 감소). 임시 국가연합체는 2025년 6건의 다자간 평화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2024년과 동일한 수치다. ●



## 5. 군사비 지출

전 세계 추정 군사비 지출은 2025년에 11년 연속 증가하여 2조 9천억 달러—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에 해당하는 수준—에 달하였으며, 이는 SIPRI가 기록한 사상 최고치다. 2025년의 증가 속도 둔화(실질 기준 +2.9%, 2024년의 +9.7% 대비)는 주로 미국이 군사원조 지출을 축소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결과다. 그 외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빠른 속도로 군사비 지출을 계속 늘려나갔다.

2025년 지역별 총 군사비 지출은 아프리카(+8.5%, 582억 달러),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8.1%, 6,810억 달러), 유럽(+14%, 8,640억 달러)에서 증가하였으나, 아메리카(−6.6%, 1조 650억 달러)에서는 감소하였고, 중동(2,180억 달러)에서는 대체로 변동이 없었다. 2016–2025년 10년간 모든 지역에서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유럽의 평균 군사비 부담율은 2024년 2.8%에서 2025년 3.2%로 계속 상승하였으며, 이는 2016년 수준의 두 배를 넘는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군사비 지출국 지위를 압도적으로 유지하였다. 2025년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9,540억 달러(2024년 대비 7.5% 감소)로, 전 세계 총 지출의 33%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큰 지출국인 중국(3,360억 달러)은 세계 총액의 12%를, 세 번째로 큰 지출국인 러시아(1,900억 달러)는 6.6%를 차지하였다.

상위 15개 군사비 지출국의 지출액을 합산한 값은 2025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80%(2조 3,040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상위 15개 지출국 중 다수는 2025년 가자지구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 2025년 세계 15대 군사비 지출국

| 국가         | 지출액<br>(십억 달러) | 변화율(%),<br>2024–25년 |
|------------|----------------|---------------------|
| 1 미국       | 954            | −7.5                |
| 2 중국       | [336]          | 7.4                 |
| 3 러시아      | [190]          | 5.9                 |
| 4 독일       | 114            | 24                  |
| 5 인도       | 92.1           | 8.9                 |
| 6 영국       | 89.0           | −2.0                |
| 7 우크라이나    | [84.1]         | 20                  |
| 8 사우디 아라비아 | [83.2]         | 1.4                 |
| 9 프랑스      | 68.0           | 1.5                 |
| 10 일본      | 62.2           | 9.7                 |
| 11 이스라엘    | 48.3           | −4.9                |
| 12 이탈리아    | 48.1           | 20                  |
| 13 대한민국    | 47.8           | 2.6                 |
| 14 폴란드     | 46.8           | 23                  |
| 15 스페인     | 40.2           | 50                  |
| 상위 15개국 소계 | 2 304          | ..                  |
| 전 세계 총계    | 2 887          | 2.9                 |

.. = 데이터 없음 또는 해당 없음, [] = 추정치.

주석: 지출액은 당해 연도(2025년) 가격 및 환율 기준의 십억 미 달러(US\$)로 표시됨. 변화율은 고정(2024년) 미 달러를 기준으로 산출된 실질 증감률임.

물론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여러 다른 회원국들이 포함되었다. 우크라이나는 GDP의 40%에 달하는 군사비 지출을 기록하며 2025년에도 세계에서 군사비 부담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남았다. 2025년 러시아의 군사비 부담율은 7.5%였다.

2025년 6월, NATO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GDP의 5.0%라는 새로운 군사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2014년에 합의된 기존 기준치인 2.0%를 크게 상향한 것이다. 2025년 9월,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군사비 지출의 재조정을 촉구하는 획기적인 보고서 「우리에게 필요한 안보 The Security We Need」를 발표하였다. ●



## 6. 무기 생산과 군사 서비스

### SIPRI 상위 100대 군수기업

전 세계 상위 100대 무기 생산 및 군수 서비스 기업(SIPRI 상위 100대 무기 기업)의 무기 매출액은 2024년 기준 총 6,790억 달러에 달했다(현재 이용 가능한 최근 자료). 이는 2023년보다 5.9% 높다. 이러한 증가는 전 세계 안보 불안의 심화, 지속되는 분쟁, 군사 예산의 증대로 인한 군 장비 및 서비스 수요의 증가를 반영한다. 상위 100대 기업 중 77개 기업은 2024년에 무기 매출이 증가했으며, 이 중 42개 기업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수요의 지속성과 기업들의 수주 잔고 규모를 고려할 때, 향후 몇 년간 전 세계 무기 매출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2024년 상위 100대 기업 순위에서도 39개 기업을 보유하며 계속해서 우위를 유지하였고, 이들의 총 무기 매출액은 3,340억 달러(2023년 대비 3.8% 증가)에 달했다. 중국은 8개 기업이 순위에 포함되어 2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들의 합산 무기 매출액은 883억 달러(2023년 대비 10% 감소)였다. 러시아는 이용 가능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2024년 상위 100대 기업에 단 2개 기업만 포함되었다. 이들 기업의 합산 무기 매출액은 312억 달러로, 2023년 대비 23% 증가하였다.

### 공급망의 무기화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늘어난 수요를 충족시킬 산업 역량은, 바로 그 수요를 촉발하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복잡한 국제 공급망이 형성되었으며 더 저렴한 핵심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이 가능해졌다. 집중된 글로벌 공급망은 비

### 2024년 무기 판매 수입 기준 세계 10대 무기 생산 및 군사 서비스 기업

| 기업명              | 국가  | 무기판매수입<br>(백만 달러) |
|------------------|-----|-------------------|
| 1 록히드 마틴         | 미국  | 64 650            |
| 2 RTX            | 미국  | 43 600            |
| 3 노스롭 그루먼        | 미국  | 37 850            |
| 4 BAE 시스템즈       | 영국  | 33 790            |
| 5 제너럴 다이내믹스      | 미국  | 33 630            |
| 6 보잉             | 미국  | 30 550            |
| 7 로스텍            | 러시아 | 27 120            |
| 8 중국항공공업집단(AVIC) | 중국  | 20 320            |
| 9 중국전자과기집단(CETC) | 중국  | 18 920            |
| 10 L3해리스 테크놀로지스  | 미국  | 16 210            |

주석: 무기 판매 수입은 고정(2024년) 가격 및 환율 기준의 백만 미 달러(US\$)로 표시됨.  
'국가'는 해당 기업의 소유 및 지배 구조가 위치한 국가, 즉 기업 본사의 소재지를 의미함.

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병목 취약점chokepoint vulnerabilities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이후 중국은 핵심 원자재 수출을 꾸준히 통제해 왔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 기업들 중 일부는 이러한 제한 조치를 자사 운영에 대한 주요 위협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현재의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공급국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선택하였으며,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위험을 줄이며 정치적·경제적 동맹국과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자급자족 체제로의 전환은 장기적인 과제이며,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없게 되면 무기가격이 상승하고 군수품 조달 예산의 구매력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



## 7. 국제 무기 이전

2021-2025년 5년간 주요 무기의 국제 이전 규모는 냉전 종식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으며, 2016-2020년 대비 9.2% 증가하였다. 주요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몇 년간 전 세계 무기 이전 규모의 추가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분쟁, 긴장, 그리고 무기 이전

무력 분쟁과 지정학적 긴장은 많은 국가들에게 무기 획득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다. 2021-2025년에 주요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들 대부분은 해당 기간 동안 수입한 무기를 실제 군사 전투 작전에 사용하였다. 무기 수출국들 또한 수입국의 수요를 촉발하는 분쟁이나 긴장의 영향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이들 국가가 자국이 표명한 무기 수출 정책과 모순

되는 상황에서도 무기를 공급하려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2021-2025년 동안 이스라엘은 자국이 2023년 10월 시작한 가자지구 대규모 군사공세에서 비롯된 다전선 전쟁에 연관되었다.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 가자지구의 높은 민간인 사망자 수와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이스라엘은 해당 기간 내내 공급국들로부터 주요 무기를 계속 공급받았다. 2021-2025년 이스라엘에 대한 최대 공급국은 미국(이스라엘 무기 수입의 68% 차지)이었으며, 그 뒤를 독일(31%)이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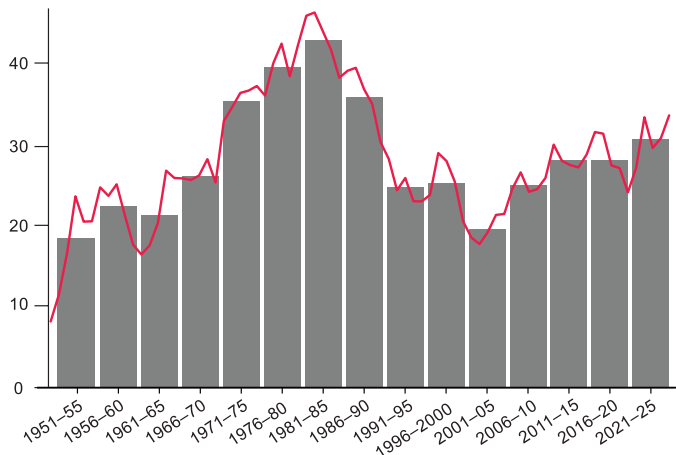
### 주요 무기 공급국

SIPRI는 2021-2025년에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총 66개국을 확인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소규모 공급국에 해당한다. 상위 25개 공급국이 전체 수출량의 98%를 차지했으며, 상위 5개국인 미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중국이 70%를 차지했다.

미국의 무기 수출은 2016-2020년 대비

### 주요 무기 이전 추세, 1950-2025년

무기 이전 양 (TIV, 추세표시가치 기준 십억 달러)



주석: 막대그래프는 5년 주기의 연평균 무기 이전 양을 나타내며, 꺾은선그래프는 1950년 이후 연간 총계를 나타냄.

**주요 무기의 10대 공급국 및 수입국 현황,  
2021-25년**

| 공급국    | 세계시장<br>점유율 (%) | 수입국        | 세계시장<br>점유율 (%) |
|--------|-----------------|------------|-----------------|
| 1 미국   | 42              | 1 우크라이나    | 9.7             |
| 2 프랑스  | 9.8             | 2 인도       | 8.2             |
| 3 러시아  | 6.8             | 3 사우디 아라비아 | 6.8             |
| 4 독일   | 5.7             | 4 카타르      | 6.4             |
| 5 중국   | 5.6             | 5 파키스탄     | 4.2             |
| 6 이탈리아 | 5.1             | 6 일본       | 3.9             |
| 7 이스라엘 | 4.4             | 7 폴란드      | 3.6             |
| 8 영국   | 3.4             | 8 미국       | 2.9             |
| 9 대한민국 | 3.0             | 9 쿠웨이트     | 2.8             |
| 10 스페인 | 2.3             | 10 호주      | 2.8             |

2021-2025년에 27%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은 36%에서 42%로 확대되었다. 향후 알려진 주요 무기 인도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당분간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 지위를 압도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요 고객과 동맹국들 사이에서 대미 의존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반면,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2016-2020년 대비 2021-2025년에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64%), 세계 점유율은 6.8%로 떨어졌다—이는 러시아 역사상은 물론, 그 전신인 소련의 1950년 이후 어떤 5년 단위 기간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재 27개 EU 회원국의 무기 수출을 합산하면, 2016-2020년 대비 2021-2025년에 36% 증가하였다. 이들 국가는 2021-2025년 전 세계 무기 수출의 2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미국 무기 수출량의 3분의 2에 해당하지만, 러시아 수출량의 4배, 중국 수출량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프랑스의 무기 수출은 2016-2020년 대비 2021-2025년에 21% 증가하여 전 세계 총량의 9.8%를 차지하였고, 독일의 무기 수출은 15% 증가하여 5.7%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지역별 주요 무기 수입 현황**

| 수입 지역          | 세계시장<br>점유율 (%),<br>2021-25년 | 수입량 변화율(%),<br>2016-20년 대비<br>2021-25년 |
|----------------|------------------------------|----------------------------------------|
| 아프리카           | 4.3                          | -41                                    |
| 미주             | 5.6                          | 12                                     |
| 아시아 및<br>오세아니아 | 31                           | -20                                    |
| 유럽             | 33                           | 210                                    |
| 중동             | 26                           | -13                                    |

**주요 무기 수입국**

SIPRI는 2021-2025년에 총 162개국을 주요 무기 수입국으로 파악하였다. 상위 5개 무기 수입국은 우크라이나,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파키스탄으로, 이들 국가가 해당 기간 전체 수입량의 35%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 수입은 2016-2020년 대비 2021-2025년에 약 100배 증가하였으며, 최소 36개국이 주요 무기를 인도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이 되었고, 이 중 대부분은 군사 원조 형태였다. 중국의 무기 수입은 자국 내 주요 무기 설계 및 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2016-2020년 대비 2021-2025년 사이 72% 감소하였다.

유럽 국가들의 무기 수입은 2016-2020년 대비 2021-2025년에 세 배 이상 증가(+210%)하여 냉전 종식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 달했으며, 이로써 유럽은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최대 무기 수입 지역이 되었다. 아메리카 국가들의 무기 수입도 증가(+12%)한 반면, 아프리카(-41%),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20%), 중동(-13%)으로의 수입은 감소하였다. ●



## 8. 세계 핵전력

2026년 초 기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 9개 국가는 약 12,187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9,745기는 군사 비축량에 포함되어 작전 배치가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비축 탄두 중 약 4,012기는 작전부대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절반을 약간 넘는 수(2,100~2,200기)는 탄도 미사일에 고도의 작전 경계태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적으로 세계 핵탄두의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이는 오로지 미국과 러시아가 퇴역한 핵탄두를 해체한 결과일 뿐이다. 특히 연간 해체되는 핵탄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머지않아 퇴역 탄두의 해체 속도가 전 세계 비축량에 새로 추가되는 신규 핵탄두의 속도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낮은 투명성은 각국 핵전력의 현황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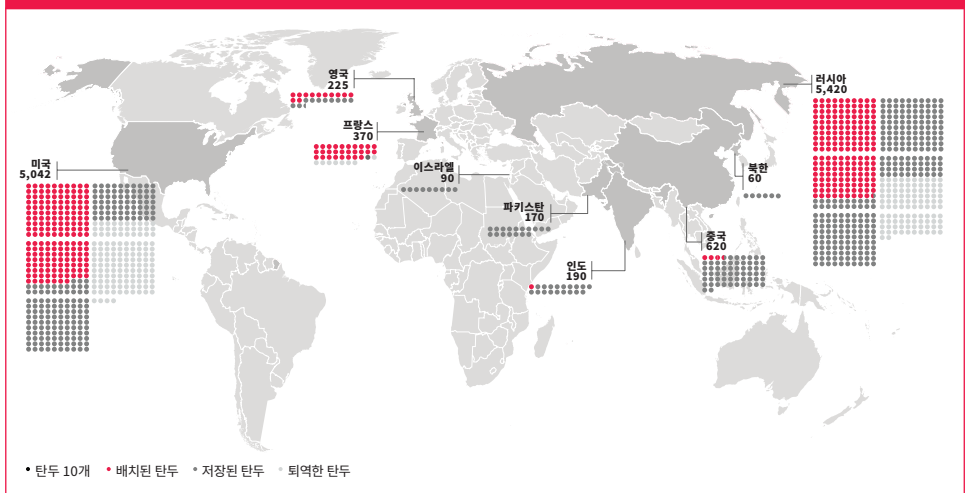
각국은 자국의 핵무기에 대해 더욱 비밀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2010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과 같이 투명성 조치를 포함했던 군비통제 협정들이 약화된 데 따른 것이다.

### 핵무기 현대화 동향

2025년에도 9개 핵보유국 모두가 핵전력을 계속 강화하였으며, 이 중 일부 국가는 그 해 핵무장 또는 핵무장 가능 신형 무기체계를 실전 배치하였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 핵탄두의 약 86%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국가 모두 광범위한 핵 현대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중국 역시 자국의 핵전력을 대대적으로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과정에 있으며, 핵탄두 수는 그 해 600기에서 최대 620기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핵무기의 현대화 및 추가 배치는 핵 확전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을 높이고 있다. 가장 불안정을 초래하는 두 가지 동향은, 재래식·핵 얽힘 Conventional-Nuclear Entanglement — 특히 미사

전 세계 핵무기 보유고 (2026년 1월 기준)



주석: 본 지도에 사용된 경계선은 SIPRI의 승인이나 수용을 의미하지 않음.

## 전 세계 핵분열성 물질 재고 현황 (2025년)

핵무기에 사용되는 폭발성 물질은 고농축우라늄(HEU) 또는 분리플루토늄과 같은 핵분열성 물질이다. 중국, 프랑스, 파키스탄, 러시아, 영국, 미국은 핵무기 제조를 위해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모두 생산해 왔으며, 인도와 이스라엘은 주로 플루토늄을 생산해 왔다. 북한은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해 왔으나, 핵무기용 고농축우라늄 역시 생산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원자력 산업을 보유한 모든 국가는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핵분열성 물질에 관한 국제패널(IPFM)’은 전 세계 핵분열성 물질 재고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 전 세계 핵분열성 물질 재고 (2025년, 톤 단위)

|                       |       |
|-----------------------|-------|
| 고농축우라늄(HEU):          | 1 240 |
| 핵무기용 또는 핵무기 전용 가능 재고: | 1 100 |
| 핵무기 직접 전용 불가 재고       |       |
| 안전조치 미적용:             | 130   |
| 안전조치 적용/상시 감시:        | 10    |
| 분리플루토늄:               | 565   |
| 핵무기용 또는 핵무기 전용 가능 재고: | 140   |
| 핵무기 직접 전용 불가 재고:      |       |
| 안전조치 미적용:             | 265   |
| 안전조치 적용/상시 감시:        | 160   |

일을 중심으로 핵 및 재래식(비핵) 겸용 군사 역량 간의 중첩이 늘어나는 현상—과 다탄두 개별목표재진입운반체(MIRV)의 확산이다. 최근 몇 년간 잠수함 기반 핵무기 운반체계 역시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 핵보유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 핵 교리 및 핵 공유

최근 몇 년간 세계 전략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핵보유국들의 핵 교리 역시 이러한 새로운 환경을 반영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러 국가가 자국의 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고 그 사용 가능성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2025년에는 핵 공유 및 조

## 세계 핵전력 현황 (2026년 1월 기준)

| 국가   | 군사 비축량 <sup>a</sup> |       |                    |
|------|---------------------|-------|--------------------|
|      | 배비 전력 <sup>b</sup>  | 총 비축량 | 총 보유고 <sup>c</sup> |
| 미국   | 1 770               | 3 700 | 5 042              |
| 러시아  | 1 796               | 4 400 | 5 420              |
| 영국   | 120                 | 225   | 225                |
| 프랑스  | 280                 | 290   | 370                |
| 중국   | 34                  | 620   | 620                |
| 인도   | 12                  | 190   | 190                |
| 파키스탄 | —                   | 170   | 170                |
| 북한   | —                   | 60    | 60                 |
| 이스라엘 | —                   | 90    | 90                 |
| 총계   | 4 012               | 9 745 | 12 187             |

— = 전무(0) 또는 무시할 만한 수치.

주석: 모든 추정치는 근사치임. SIPRI는 새로운 정보와 기존 평가의 업데이트를 바탕으로 매년 세계 핵전력 데이터를 수정함. 국가 나열 순서는 최초로 확인된 핵실험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 이스라엘이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결론적이고 공개된 출처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음.

<sup>a</sup> “군사 비축량”은 모든 배비된 탄두 및 중앙 저장소에 보관 중인 탄두(퇴역 탄두 제외)를 의미하며, 일정 준비 과정을 거쳐 잠재적으로 배비될 수 있는 수량임.

<sup>b</sup> “배비(配備)전력(탄두)”은 미사일에 장착되어 있거나 작전 부대가 있는 기지에 위치한 탄두를 의미함.

<sup>c</sup> “총 보유고”는 비축된 탄두뿐만 아니라 해체를 대기 중인 퇴역 탄두까지 포함함.

율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동향이 있었으며, 그 중에는 프랑스와 영국 간의 새로운 조율 협정도 포함된다. ●



## 9. 미사일 및 무장 무인항공기(UAV)의 확산 및 사용

재래식 및 핵·재래식 겸용 미사일 체계는 물론, 다양한 무장 무인항공기(UAV, 또는 드론)에 대한 수요와 그 확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지속되는 분쟁과 비축물자를 보충하거나 확대하려는 각국의 수요에 힘입어 이전보다 훨씬 높은 속도로 생산 및 수출되고 있다. 유도, 추진, 탑재체 통합 기술의 발전으로 자폭형 무인항공기는 점차 단거리 미사일에 가까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체계를 규제하려는 노력에 또 하나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 무력 분쟁에서의 사용

2025년 미사일과 무장 UAV는 무력 분쟁에서 다양한 타격 임무에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적국 영토 깊숙한 곳의 기반시설 및 전략적 표적을 겨냥한 장거리 정밀타격 임무, 방공 및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려는 포화 일제타격, 전장 작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UAV 군집 공격 및 FPV(1인칭 시점) 공격, 그리고 적국 영토 내부에 배치된 공격용 UAV를 이용해 전략적 표적을 타격하거나 고위 군 인사를 암살하는 정교하게 계획된 작전 등이 포함된다.

전 영역에 걸친 무장 UAV의 빠른 개발 속도와 그 경제성 및 다용도성은 정보·감시·정찰(ISR) 작전을 포함한 전쟁의 본질 자체를 바꾸어 놓는 결정적 흐름을 나타낸다. UAV의 빠른 확산과 무력 분쟁에서의 사용 급증은 대응 기술 분야에서의 군비경쟁을 동반 촉발하였다.

### 거미줄 작전 (OPERATION SPIDER'S WEB)

수개월에 걸쳐 러시아 내부로 밀반입된 100기 이상의 공격용 드론을 활용한 ‘거미줄 작전’은, 2025년 6월 1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 깊숙이 위치한 다수의 공군기지를 대상으로 감행한 합동 공습 작전이었다. 보고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러시아의 핵 탑재 가능 폭격기 함대의 약 3분의 1을 포함하여 총 41대의 러시아 군용기가 피해를 입었다. 본 작전의 결과로 러시아는 전략폭격기를 분산 배치하고 군사 물류 체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 규제 메커니즘

이 분야의 군비통제 및 수출통제 체계는 이미 현실에 뒤처져 있으며,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기술 수출통제를 위한 바세나르 체제 등 기존의 수단은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의 일부만을 포괄하고 있다. 무장 UAV를 규율하는 전용의 구속력 있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의 다자 협의체들은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국은 타격, ISR, 군집 작전 등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보다 다용도의 자율형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동시에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층적인 ‘드론 장벽’ 구상과 본토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예: 미국의 골든 돔)에도 투자하고 있다. 분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수 유형의 미사일 및 무장 UAV 작전은 기존 무력충돌법상의 구별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완전자율 살상형 UAV 체계로의 전환 움직임은 책무성 및 국제인도법 준수와 관련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 10. 핵 군비축소 및 군비통제, 핵확산방지 및 안보

세계 핵질서의 악화는 2025년에도 계속되었다. 주요 핵보유국 간의 경색된 관계와 전략적 대화의 부재는 군축 및 군비통제 진전을 계속 가로막았다. 연말 기준, 중국, 러시아, 미국이 참여하는 어떠한 형태의 군비통제 체제에 대한 협상도 임박했다는 징후는 거의 없었다. 이는 가장 큰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와 미국 간 관계가 부분적으로 해빙되고, 양자 간 2010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만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그러하였다.

지정학적 긴장과 지역 분쟁은 핵무기 사용의 위협뿐 아니라, 민간 핵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통제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 유출의 가능성도 부각시켰다.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과 핵 위험 감축의 중요성은 다자 포럼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었으나, 이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

국제 비확산 체제는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후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류해 12일간의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 공격은 비확산 목표 달성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으나, 여러 법률 전문가와 국가들로부터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탄 받았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이란 핵시설의 지속적 감시를 종료시킴으로써 오히려 그 목표를 훼손하였다. 이 전쟁은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침공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무력의 ‘예방적’ 사용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80주년

핵군축, 핵비확산 및 군비통제에 관한 국제 규범의 지속적인 약화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80주년 기념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쓰이 가즈미 히로시마 시장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을 비롯한 우려스러운 추세들은 “국제사회가 역사적 비극으로부터 마땅히 함양했어야 할 교훈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이다.

### 다자적 절차

이 12일간의 전쟁과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은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2026년 검토회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 흐름은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대한 우려, 2026년 2월로 예정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만료, 그리고 주로 핵군축 진전 부재와 관련된 NPT 당사국 간의 그 외 이견들과 겹치면서, 검토회의 논의에 더 큰 부담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핵무기금지조약(TPNW) 당사국들은 핵억지에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기존에 합의된 비엔나 행동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군축을 향한 진전은 물론, 새로운 위험 감축 조치에 대해서도 핵보유국들과 의미 있는 정치적 동력을 형성할 전망은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 11. 화학무기와 안보 위협

화학무기는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이 협약은 1997년에 발효되었고 2025년 12월 기준으로 193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하였다.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CWC의 이행을 감독하고, 화학무기 군축을 검증하며, 화학무기의 재등장 방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OPCW는 2023년 전 세계에 신고된 모든 화학무기 비축량의 폐기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이후 화학무기의 재등장 방지로 초점을 옮겼다.

###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의혹 및 이에 대한 대응

CWC는 가장 성공적인 군축 조약 중 하나로 평가되지만, 주로 시리아와 러시아와 관련하여 중대한 도전과 이행 우려에 직면해 왔다. 시리아는 2013년 CWC에 가입한 뒤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신고하였으며, 이는 2016년까지 OPCW의 검증 하에 제거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후 OPCW의 조사를 통해 시리아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4년 이후 여러 차례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0년간 OPCW 회원국들은 시리아를 협약 이행 상태로 되돌리자 노력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2025년, 시리아의 신정부가 남아 있는 화학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해 OPCW와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시리아의 상황은 크게 전환되었다. 수단 및 우크라이나에서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은 여전히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수단 및 우크라이나 내 화학무기 사용 의혹

2025년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기술지원단 방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장 지역에서 폭동진압작제(RCA)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복수의 국가가 러시아 측에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2025년 수단 내에서 제기된 화학무기 사용 의혹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도 이와 동일한 해명 절차가 발동되었다.

### 화학무기 통제 및 군축

OPCW는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정책결정 기관 내의 지속적인 양극화와 계속되는 허위정보 캠페인의 대상이 된 점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시리아 상황이 개선되면서 2025년에는 대립적 양상이 줄어들었고, OPCW의 예산과 같이 과거 더 논쟁적이었던 의제에서도 합의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졌다. OPCW는 또한 검증, 국제 협력 및 지원,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를 비롯해 CWC와 관련된 기술 발전의 추적이라는 일상적 활동도 계속 수행하였다. 2023년 개소한 OPCW 화학·기술 센터는 기술적 역량과 실험실 시설을 통해 OPCW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25년 11월, OPCW 회원국들은 스위스의 사브리나 달라피오르 Sabrina Dallafior 대사를 차기 OPCW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였다. 달라피오르 대사는 2026년 7월 취임할 예정이다. ●



## 12. 생물무기와 보건 안보 위협

생물무기는 인체에 해를 가하기 위해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독소를 특정 전달 수단을 통해 확산시키는 무기이며,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전장에서의 생물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주요 법적 문서는 1972년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금지협약(BWC)이다. BWC는 2025년 코모로와 키리바시가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당사국 수가 190개국으로 증가하면서 보편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생물무기 금지 체제에는 화학 및 생물무기의 전쟁 중 사용을 금지하는 1925년 제네바의정서, 호주그룹 Australia Group과 같은 수출통제 체제, 화학 및 생물무기 사용 의혹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조사 메커니즘,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제 1540호를 비롯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조치들은 모두 생물무기의 금지 및 예방이라는 측면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생물무기 군축 및 비확산

2025년에는 생물무기 금지의 역사에서 두 가지 중요한 기념일이 있었다. 1925년 제네바의정서 체결 100주년과 BWC 발효 50주년이다. 이 두 기념일은 생물무기에 반대하는 규범의 강력함을 재확인시켜 주었으나, 동시에 그러한 규범을 실효적인 제도적 역량으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부각시켰다.

2025년 BWC 강화 실무 그룹 회기는 개념적 논의에서 구체적인 문안 작성으로의 전환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나, 연말의 절차상 교착으로 인해 최종 실질보고서의 공식 채택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마찬가지로 2025년 BWC

### 글로벌 보건 안보 역학

2025년에는 감염병의 위협, 팬데믹 대비 태세, 국제 보건 거버넌스 문제가 투명성, 신뢰 및 지정학적 경쟁 이슈와 교차하였다. 해당 연도에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하였으며, WHO 회원국들에 의해 새로운 ‘팬데믹 협정’이 채택되었다. 한편, WHO 자문단은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조사가 여전히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당사국 회의 역시 절차적 교착과 실질적 성과에 대한 합의 도달 실패로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미국은 BWC의 이행 및 검증 강화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검증 이니셔티브에 각국이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 기술 발전과 위험

인공지능, 합성생물학, 실험실 자동화의 발전은 생명과학의 규모와 속도, 접근성을 확대시키며, 그 유익한 가능성과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동시에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본래 다른 기술적 시대에 맞춰 설계된 거버넌스 체계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군비통제 및 생물안보(Biosecurity) 체계가 직면한 과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과학 생태계 전반에서의 제도적 적응, 이행, 그리고 신뢰 구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



### 13. 재래식 군비통제 및 비인도적 무기의 규제

비인도적 무기를 규제하기 위한 주요 다자간 조약은 1981년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Convention)이다. 이외에도 대인지뢰 및 집속탄에 관한 별도의 협약들이 존재한다. 인도적 우려를 유발하는 그 외 재래식 무기 범주는 다른 법적 또는 정치적 절차에 따라 다루지고 있다.

#### 집속탄 및 대인지뢰 협약으로부터의 탈퇴

2025년의 핵심적인 동향은 2008년 집속탄 금지협약(CCM)과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APM)으로부터의 전례 없는 탈퇴였다. 2025년 3월 6일 발효된 리투아니아의 CCM 탈퇴는, 한 국가가 인도적 군비통제 조약에서 탈퇴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그 직후,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유럽 5개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안보 우려를 이유로 APM 탈퇴 의사를 발표하였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탈퇴 통보는 2025년 12월 27일에 발효되었으며, 폴란드는 2026년 1월 10일, 핀란드는 2026년 2월 20일에 각각 발효되었다.

####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폭발무기 사용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폭발무기 사용(EWIPA)은 2025년에도 주요 무력 분쟁에서 여전히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가자지구, 수단, 우크라이나에서 특히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EWIPA 사용의 인도적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2022년 정치적 선언은 90개국의 지지를 받았다. 2025년에 열린 두 번째 후속 회의는

#### 2025년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 사용 현황

| 무기 카테고리                   | 사용 국가                                                    |
|---------------------------|----------------------------------------------------------|
| 대인지뢰                      | 캄보디아 <sup>a</sup> ; 이란; 북한; 미얀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sup>a</sup> |
| 집속탄                       | 미얀마; 이란 <sup>a</sup> ; 러시아; 태국 <sup>a</sup> ; 우크라이나      |
| EWIPA                     | 가자지구, 수단, 우크라이나 등 주요 무력 분쟁 지역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됨            |
| 소이무기<br>Incendiary Weapon | 러시아; 남수단; 우크라이나                                          |

EWIPA=인구밀집 지역내 폭발성 무기(explosive weapons in populated areas)

<sup>a</sup>사용 의혹이 제기된 경우(Alleged use).

정치적 약속을 구체적인 군사적·인도적 행동으로 전환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마무리되었다.

#### 인도적 책무와 군사적 필요성 간의 긴장

다자간 재래식 군축 및 군비통제의 성과를 보존하거나 강화하고, 무기로 인한 인적 피해를 줄이는 규범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은 분명히 압박을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이제 군비통제보다 정치·군사적 이익의 추구를 더 중시하고 있다.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들 국가는 군비통제 제약과 투명성 조치가 적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에 동의하기를 점점 더 꺼리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이러한 체계는, 민간인이 무력 분쟁 중 한층 높아진 위협에 직면하고 국제법 전반이 위협받는 이 시점에 심각한 압박에 놓여 있다. ●



## 14. 인공지능(AI), 국제 평화 및 안보

인공지능의 발전은 막대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으나, 동시에 기존의 위협을 심화시키거나 새로운 국제 평화 및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국가들은 민간 및 군사 영역의 AI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위협을 새로운 포럼 및 이니셔티브 설립을 통해 관리할 필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포럼 및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논의와 작업은 2025년에도 계속되었다.

### 군사 AI

지난 10여 년간 군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국제적 정책 논의는 대부분 자율 무기 체계(AWS)에 집중되어 왔다. AWS는 일반적으로 작동 이후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선정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2023년 이후, 논의는 표적 선정, 작전 계획, 정보 분석 등 AI의 다른 군사적 활용 분야로 확대되었다. 2025년 주요 무력 분쟁, 특히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 보고된 AI 사용 사례는 정책결정자들이 이른바 AI 의사결정 지원체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었다.

AWS에 관한 논의는 역사적으로 주로 1981년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틀 안에서 제네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25년에는 유엔총회가 뉴욕에서 별도의 전담 논의 트랙을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군사 분야 AI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유엔총회는 군사 AI가 평화 및 안보에 미치는 함의에 대해 2026년 비공식 의견 교환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CCW협약 정

### 2025년에 채택된 핵심 AI 거버넌스 문서

**범용 AI 모델 행동강령:** 7월에 EU에 의해 채택됨.

**EU AI 전략 문서:** ‘AI 대륙 전략’(4월 발표) 및 ‘AI 적용 전략’(10월 발표).

**중국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행동계획:** 7월 세계인공지능대회에서 발표된 이 13개 항의 로드맵은 AI 안전 기준 및 기술 규범에 관한 국제 협력을 증진함.

**미국의 AI 행동계획:** 7월에 발표된 이 계획은 연방 AI 연구를 위한 국가적 우선순위와 핵심 인프라 및 보건 의료를 위한 부문별 안전 기준을 개괄함.

부 전문가 그룹의 3년 임기는 2026년에 종료되며, AWS 규제와 관련한 향후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각국이 새로운 거버넌스 규범의 틀과 내용에 대한 정식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 민간 AI

민간 AI가 평화 및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그 해 계속 발전하였다. 주요 동향으로는 유엔 회원국들이 ‘AI에 관한 독립 국제과학패널(IISP-AI)’설립에 합의한 것, 다중이해관계자 방식의 ‘AI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대화’가 출범한 것, 그리고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 등이 있다. 이외에도 EU와 중국, 미국을 비롯해 AI 개발을 선도하는 여러 국가는 기초적인 법률이나 자발적 AI 원칙(대부분 2023–2024년에 마련됨)에서 벗어나, 공식적이고 집행력 있는 거버넌스 절차와 상세한 신규 준수 지침 및 지시사항을 채택하거나 입법하는 단계로 전환하였다. ●



## 15. 사이버 및 디지털 기술: 동향, 사건, 거버넌스

사이버 영역과 그것이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사이버 활동과 범죄 행위자의 사이버 활동 간의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 사이버 작전은 실제 군사작전과 병행하여 다수의 분쟁에서 나타나고 있다. 랜섬웨어 활동은 전례 없는 규모로 공공 및 민간 데이터, 핵심 인프라, 정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는 사이버보안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부상하였으며, 공격자들에게는 취약점을 발견하고 공격을 개시하며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는 동시에, 방어자들에게는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이상 징후를 식별하며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수단과 틀을 마련하거나 지역 협력을 강화하거나 특정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수의 외교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 사이버 동향

기술 변화가 가속화되고 지정학적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2025년 사이버 역량의 발전은 진전의 촉매제이자 동시에 취약성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사이버 작전은 그 해 내내 현대 분쟁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계속 진화하였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사이버 작전을 주고받은 것, 2025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이례적으로 심각한 군사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양국이 처음으로 사이버 작전을 무력 분쟁에 공개적으로 통합한 것,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충돌 과정에서 조율된 디지털 보복을 활용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실제 분쟁 지역을 넘어서도, 2025년의 정교한 첩보 활동은 적대 세력들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사전 포석을 마련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사이버 범죄 역시 규모와 정교함 양면에서 계속 진화하였으며, 랜섬웨어 및 기타 공격이 공급망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가운데, 전문화된 사기 조직의 활동도 빠르게 확산되었다.

### 사이버 거버넌스

2025년은 전 세계 사이버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된 해였다. 유엔 개방형 실무그룹은 활동 기간을 마무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국가 행동을 위한 새로운 상설 글로벌 메커니즘을 설립하였으나, 이 분야에서 국제법의 적용 가능성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사이버 침투 역량 및 랜섬웨어에 대응하는 이니셔티브들에서도 계속해서 동력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은 안보와 인권 간의 균형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5년 10월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2025년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흐름은, 더 많은 국가들이 사이버공격의 배후로 지목되는 행위자를 명시하는 공개 귀속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각국과 지역기구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예측 가능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국의 사이버공간 내 행위에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점점 더 많이 공개하고 있다. 2025년에는 콜롬비아, 대한민국, 태국이 자국의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이로써 이러한 입장을 발표한 국가는 총 35개국이 되었고, 아프리카연합(AU)과 EU도 자체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



## 16. 우주 안보 거버넌스

지난 10년간 경제적, 과학적, 군사적 목적으로 우주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더 많은 국가들이 자국 또는 지역 차원의 우주 정책을 채택하였다. 우주는 우주 시대의 시작부터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과 우주 활동을 둘러싼 경쟁 심화는 우주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점점 더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우주무력화(counterspace)’ 역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점이 우려스러운데, 이는 민간 우주 활동의 병행적 확대와 우주 시스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존도 증가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 군사 목적의 우주 활용

2025년에는 여러 국가가 새로운 군사 우주 역량 확보를 가속화하였다. 자국 주권 차원의 우주 역량을 추구하는 이러한 흐름은, 우주 안보를 우선시하는 중국, 미국, 유럽 각국의 새로운 국가 및 지역 정책과 맞물려 나타났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는 우주 기반 요격체에 대한 투자 계획, ‘우주전(space warfighting)’ 관련 정책, 그리고 ‘미국의 우주 우위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우주는 또한 중국이 2025년 발표한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에 관한 백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프랑스, 독일, 영국은 카운터스페이스 역량에 대한 투자 계획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전략을 도입하였으며, EU는 우주에 대한 독자적 접근권 확보와 유럽 산업 확대를 목표로 한 새로운 법안(EU 우주법 초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유럽의 독자적 우주 역량 개발은 대서양 동맹 관계의 불확실성 증대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 인식에 힘입어 추진되고 있다.

### 미국의 골든 돔 (THE US GOLDEN DOME)

2025년 미국은 ‘골든 돔’으로 알려진, 우주 기반 요격체(space-based interceptors)를 포함하는 새로운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5년에 발표된 총비용 추정치는 백악관이 제시한 1,750억 미 달러에서부터 5,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독립적 기관들의 전망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막대한 기술적 장벽을 극복해야 할 것이며,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한 신뢰성 있는 방어책이 되기는 어려우나 전략적 안정을 저해하고 새로운 우주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우주 안보에 대한 다자 논의

우주 거버넌스에 관한 다자 논의는 수십 년간 진행되어 왔으나, 그 진전 속도는 더디었다. 유엔 차원의 우주 안보 논의는 2025년 진전이 정체되었다. 4월에 열린 ‘모든 측면에서의 우주군비경쟁 방지(PAROS)’에 관한 유엔 개방형실무그룹의 첫 회기는 절차적 논쟁에 머물렀으나, 7월에 열린 2차 회기에서는 실질적 논의로 옮겨갔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는 긴장이 한층 고조되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유엔의 핵심적인 우주 관련 결의안들, 특히 매년 채택되는 PAROS 결의안에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유럽 각국을 비롯한 여러 핵심 행위자 간의 대화를 통해 외기권에서의 위협을 최소화할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 중국은 2025년 백서를 통해 다자간 우주 안보 거버넌스에 참여할 의지를 내비쳤으며, 유럽, 중국 및 그 외 국가들이 우주 안보와 관련된 특정 용어와 개념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구축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존재한다. 이는 우주 영역에서의 오인, 오해, 오판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 17. 이중용도 및 무기거래통제

군용 물자 및 이중용도 품목 거래에 대한 합의된 통제 기준을 수립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 다자간, 지역적 제도들은 2025년에도 지정학적 긴장, 신규 및 지속 중인 무력 분쟁, 핵심 기술 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심각한 압박에 처해 있었다. 각국은 품목 이전에 대한 새로운 통제 조치를 마련하거나 특정 목적지로의 이전을 제한할 때, 일방적으로 행동하거나 대체적인 협의체를 통해 움직이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를 해체하려는 본격적인 시도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이러한 제도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 무기거래조약

2013년 무기거래조약(ATT)의 당사국 수는 더딘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무기 공급국 및 수입국 중 일부는 여전히 가입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각국이 제출해야 하는 초기보고서 및 연례보고서의 제출 건수에도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2025년에도 ATT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이전과 수단 내 분쟁 당사자들에게 흘러들어간 무기 이전을 비롯해, 보다 논쟁적인 무기 수출에 관한 어려운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으로 계속 기능하였다. 각국은 또한 ATT 절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27년까지 조약의 5개년 전략을 수립하기로 하는 임무에 합의하였다.

### 2025년 시행 중인 유엔 및 EU 무기 금수 조치

유엔 (14개 금수 조치)

• 아프가니스탄 (NGF: 탈레반)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분적, NGF) • 콩고민주공화국 (NGF) • 아이티 (NGF) • 이란 • 이라크 (NGF) •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다에시), 알카에다 및 관련 개인과 단체 (NGF) • 북한 • 레바논 (NGF) • 리비아 (부분적, NGF) • 소말리아 (NGF: 알샤바브) • 남수단 (부분적, NGF) • 수단 (부분적: 다르푸르 지역) • 예멘 (NGF)

유럽연합(EU) (22개 금수 조치)

유엔 금수 조치의 이행 (11개): • 아프가니스탄 (NGF: 탈레반)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분적, NGF) • 콩고민주공화국 (부분적, NGF) • 아이티 (NGF) • 이라크 (NGF) •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다에시), 알카에다 및 관련 개인과 단체 (NGF) • 북한 • 레바논 (NGF) • 리비아 (부분적, NGF) • 소말리아 (NGF: 알샤바브) • 예멘 (NGF)

유엔의 대응 조치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EU 무기 금수 조치 (3개): • 이란 • 남수단 • 수단

유엔의 대응 조치가 없는 금수 조치 (8개): • 벨라루스 • 중국 • 이집트 • 미얀마 • 러시아 • 시리아 • 베네수엘라 • 짐바브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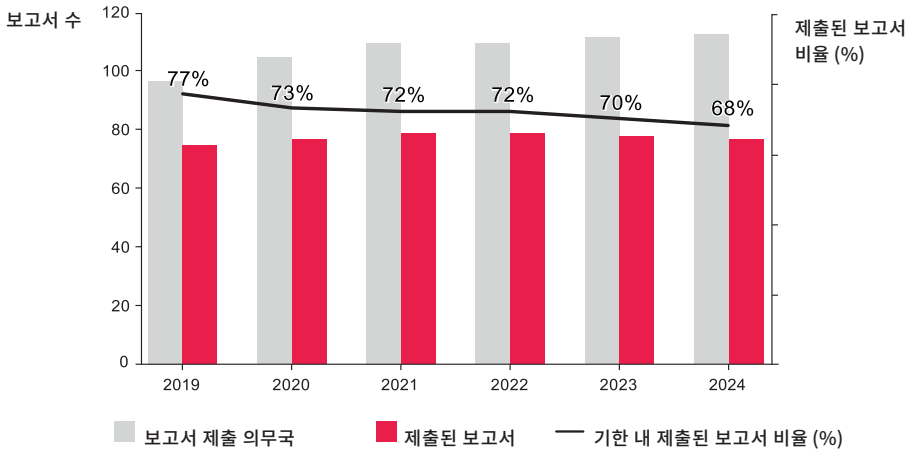
ISIL =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 NGF = 비정부 세력, 부분적 =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상국 정부로의 무기 이전을 허용하는 금수 조치임.

### 다자간 무기금수조치

2025년 기준, 유엔 무기금수조치 14건과 EU 금수조치 22건이 발효 중이었다. 새로운 다자간 무기금수조치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2023년 이후 정지되어 있던 이란에 대한 유엔 무기금수조치가 다시 부과되었다. 일부 국가들이 유엔 무기금수조치를 회피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2025년에도 그 실효성이 계속 훼손되었다. 예를 들어, 금수조치 대상국인 리비아와 예멘으로의 무기 이전, 그리고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금지된 수출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확인되었다. EU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



##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 무기거래조약(ATT) 당사국 수, 2019-24년



의 정책 변화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무기금수조치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은 2025년 들어 조율이 약화되었다.

### 수출통제체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 효과는 2025년에도 다자간 수출통제체제—화학 및 생물무기를 다루는 호주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핵공급그룹(NSG), 그리고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기술 수출통제를 다루는 바세나르 체제(WA)—의 운영에 계속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 체제는 통제 목록의 점진적 갱신과 기술적 논의의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WA가 통제 목록의 여러 추가 항목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점점 더 많은 국가와 EU가 WA 내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품목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통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 EU 통제조치

2025년 한 해 동안 EU는 군수품 및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중개, 통과, 환적에 대한 공동의 법적 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EU는 무기 수출에 관한 EU 공동입장 검토 작업을 완료하고, 위험 평가에 관한 공동입장의 문구를 강화하며 EU 내 군수장비 공동생산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이외에도 EU 집행위원회는 공동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EU 역내 군수장비 이전을 규율하는 제도의 개정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 중 일부는, 자국의 수출통제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독권(national oversight)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는 EU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에 관한 현행 협정  
(2026년 1월 1일 기준)**

- 1925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물질의 전시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 (1925 제네바의정서)
- 1948 집단살해범죄 방지 및 처벌에 대한 조약 (제노사이드조약)
- 1949 전시 민간인 보호에 대한 제네바 협약 (제 4차 제네바협약); 1977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 1, 2의정서가 제4차 제네바협약에 추가
- 1959 남극조약
- 1963 대기권 ·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PTBT)
- 1967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우주조약)
- 1967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핵무기 금지에 관한 조약 (틀라텔볼코조약)
- 1968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조약 (핵비확산조약, NPT)
- 1971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대한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무기의 설치 금지조약 (해저비핵화조약)
- 1972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 1974 지하핵실험제한조약 (TTBT)
- 1976 평화적 목적의 지하 핵폭발에 관한 조약 (PNET)
- 1977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협약)
- 1980 핵물질물리적적방호협약
- 1981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 CCW협약, 혹은 '비인도적 무기'에 관한 조약)

- 1985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라로통가조약)
- 1987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중거리핵전력조약 / INF조약)
- 1990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CFE조약)
- 1992 항공자유화조약
- 1993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화학무기금지조약, CWC)
- 1995 동남아비핵지대조약 (방콕조약)
- 1996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펠린다바조약)
- 1996 세부지역군비통제협정 (플로렌스협정)
- 1997 화기, 탄약, 폭발물 및 기타 관련 자재의 불법 제조 및 밀거래에 대한 미주 간 협약 (CIFTA)
- 1997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이전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대인지뢰금지협약 / APM 협약)
- 1999 재래식무기 인수의 투명성에 관한 미주 간 협약
- 2001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지역 내 화기, 탄약 및 기타 관련 자재의 통제에 관한 의정서
- 2004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및 아프리카의 빨지역 내 소형무기의 방지, 통제, 축소에 관한 나이로비 의정서
- 2006 소형무기 및 탄약, 기타 관련 자재에 관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협약
- 2006 중앙아시아 비핵지대화 조약 (세미팔라틴스크조약)
- 2008 확산탄금지협약
- 2010 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
- 2010 소형무기 및 탄약, 그것의 제조, 수리 및 조립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부품 통제에 관한 중앙아프리카 협약 (킨샤사 협약)
- 2011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2011년 비엔나문서
- 2013 무기거래조약 (ATT)
- 2017 핵무기금지조약 (TPNW)



## 미효력 협정(2025년 1월 1일)

1996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1999 유럽재래식무기감축(CFE) 채택에 관한 협정

## 안보 협력 기구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동향이 있었다. 몰디브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했으며,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브릭스(BRICS) 정부 간 기구의 새 회원국이 되었다. 아르메니아, 시리아, 우즈베키스탄은 대(對)다에시(Daesh) 글로벌 연합에 동참했다. 아프리카연합(AU)에서는 군사쿠데타 여파로 역대 최대인 7개 회원국의 자격 정지 조치가 유지되었다. 동티모르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가입한 반면,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에서 탈퇴했다. 마지막으로 나이지리아는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했다. ●

## 2025년 주요 사건 연대기

|            |                                                                      |
|------------|----------------------------------------------------------------------|
| 1월 20일     | 미국,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절차 개시                                             |
| 2월 18일     | 러시아-미국, 일부 외교 관계 정상화 합의                                              |
| 3월 18일     | 이스라엘, 가자 지구 대규모 공격 감행 (1월 합의된 휴전 협정 파기)                              |
| 4월 11-14일  | 수단 최대 규모의 국내실향민(IDP) 캠프 피습, 민간인 1,500명 이상 사망                         |
| 5월 7-10일   | 인도-파키스탄, 국경 지대에서 강렬한 상호 포격전 전개                                       |
| 6월 13-24일  | 이란-이스라엘 12일 전쟁 발발 (6월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3곳 타격 포함)                      |
| 7월 24-28일  | 캄보디아-태국 무력 충돌 발생, 7월 28일 휴전 협정 체결로 종결                                |
| 8월 22일     | 가자 지구 내 기근 발생 공식 확인 (사상 최초)                                          |
| 9월 2일      | 미국, 베네수엘라 영해 및 인근 해역에서 민간 소형 선박 대상 연쇄 치명적 타격 개시                      |
| 10월 10일    | 미국 주도의 평화안에 따라 가자 전쟁 휴전 합의, 그러나 산발적 공격 지속                            |
| 11월 22-23일 |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아프리카 주요 현안 및 신규 핵심 광물 프레임워크 집중 논의) |
| 12월 1일     | 유엔, 핵 지휘·통제·통신(NC3) 체계 내 인공지능(AI) 도입 위험성에 대한 최초의 공식 문안 합의 완료         |



## SIPRI 데이터베이스

### SIPRI 군사비 지출 데이터베이스

1949년 이래 국가들의 연간 군사비 지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별 군사비 지출액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별 통화 금액을 US 달러로 일정하게 환산하고, 국내총생산(GDP)에서의 비중을 제공한다.

### SIPRI 무기 산업 데이터베이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100개 회사들의 총 수익과 무기 판매 및 군사 용역을 통한 업체별 수익 정보를 제공한다. 중국 기업에 대한 정보는 2015년부터 포함되고 있다.

### SIPRI 무기이전 데이터베이스

1950년 이후 주요 국제적 재래식무기이전에 대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SIPRI 무기금수조치 데이터베이스

유럽연합, 유엔, 또는 국가간 조직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시행된 모든 무기금수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1998년부터 시행되어온 모든 금수조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SIPRI 국가보고서 데이터베이스

무기 수출에 관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국가 보고서의 링크를 제공하며, 새롭게 발간되는 국가 보고서의 링크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

### SIPRI 다자간 평화활동 데이터베이스

2000년 이후 실시된 모든 유엔 및 비유엔 평화활동에 대한 정보 (위치, 배치 및 활동 기간, 수행과제, 참여국가, 수행인원, 비용, 사망자수 등)를 제공한다.

SIPRI 데이터베이스는 SIPRI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

# 2026 시프리 연감 구매하는 방법

2026 시프리 연감: 군비, 군축, 국제안보(영문)

옥스포드대학 출판부 온/오프라인 출판

ISBN 978-0-19-792320-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sipriyearbook.org](http://www.sipriyearbook.org)에서 확인 가능함.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gnalistgatan 9  
SE-169 72 Solna, Sweden  
Telephone: +46 8 655 97 00  
Email: [sipri@sipri.org](mailto:sipri@sipri.org)  
Internet: [www.sipri.org](http://www.sipri.org)

번역: 황용하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연구위원)  
검토: 김지유(피스모모 인턴), 김가연(피스모모 리서치랩 실장)  
출판: 더슬래시  
디자인: 소행성디자인



# SIPRI YEARBOOK 2026

## 군비, 군축, 국제안보

SIPRI 연감은 군비, 군축, 국제안보에 관한 권위 있고 독립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공한다. 본 책자는 국제안보, 무기 및 기술, 군비 지출, 무기 생산 및 무기 거래, 무력 분쟁 및 분쟁 관리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핵무기, 화학 무기 및 생물학 무기 통제 노력에 대한 개괄적 정세를 담고 있다.

본 책자는 2025년 동향을 다룬 SIPRI 연감 제57호를 요약한 자료이며, 다음을 포함한다.

- 무력 충돌 및 충돌 관리: 글로벌 및 지역별 무력 충돌 동향, 평화 프로세스 및 평화 유지 활동 개요
- 군비 지출, 국제 무기 이전 및 무기 생산 동향: 특히 글로벌 안보의 심각한 와해로 야기된 결과들을 중심으로 기록
-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의 확산: 무력 충돌에서의 사용 확대 양상에 주목
- 세계 핵 전력: 핵보유국 9개국의 핵 현대화 추세 조명
- 핵 군비통제: 미·중·러 간 및 다자간 포럼에서의 대화와 더불어, 12일 전쟁 기간 동안 이란의 핵·군사 인프라에 가해진 일련의 대규모 군사 타격 포함
- 화학적, 생물학적 안보 위협: 화학무기 사용 의혹 조사, 화학·생물 무기 금지를 위한 국제 법적 문서의 발전 동향 포함
- 재래식 무기 통제 및 비인도적 무기 규제: 집속탄,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폭발물 무기, 지뢰 및 소형 무기 및 경무기 포함
- 인공지능, 사이버 공간 및 우주 안보의 국제 거버넌스: 자율 무기 시스템에 중점
- 이종 용도 및 무기 거래 통제: 무기 거래 조약의 동향, 다자간 무기금수조치 및 수출 통제 체제, 그리고 이러한 통제에 대한 유럽 연합의 법적 틀

이 외에도 군비통제 및 군축 협정, 국제안보협력기구 목록 및 2025년 주요 사건 목록을 수록하고 있음.